

라파엘로와 보티첼리를 비교해보라. 자신의 주관적 감상문 쓰기.

라파엘로(1503)와 보티첼리(1489)의 회화 '수태고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두 사람이 같은 주제를 두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보고, 내 감상을 정리해보고 싶다.

기본적으로 두 작품은 '바닥이 같은 색깔의 정사각형 타일로 구성' 되어있고, 그림의 세로축은 '벽과 나무, 기둥'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 작품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는 듯하다. 르네상스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균형, 안정감, 질서'가 느껴지는 대목인 듯하다. 하지만 두 작품의 '균형, 안정감'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라파엘로의 <수태고지>는 바닥과 기둥을 통해 표현되는 균형감과 안정감이 '작품의 주제인 천사와 마리아'를 압도하지만,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는 바닥과 벽에서 느껴지는 균형감과 안정감이 '작품 주제인 천사와 마리아'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두 작품 속 '마리아와 천사'의 거리가 이러한 대비를 더욱 극대화하는 듯하다. 라파엘로의 <수태고지>에서 마리아와 천사의 거리는 꽤 멀다. 천사와 마리아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이 극대화되기보다, 전체적인 구성이 눈에 들어온다. 선택을 앞둔 마리아의 고뇌보다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가는 모습과 마리아가 극대화되어 보인다. 또한 배경 속 '새', '구름을 타고 있는 어느 천사' 역시 마리아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이 마리아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의 집중과 더불어 작품의 중심 기둥에서 더 가깝게 배치된 '마리아'를 통해 작품 전체적으로 '성경을 든 마리아'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에 반해 보티첼리의 <수태고지> 속 천사와 마리아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다. 가깝게 표현되어 있어, 직접적인 천사와 만남의 모습이 포착된다. '천사의 방문과 고뇌하는 마리아의 선택'이라는 수태고지의 주제가 더욱 부각되는 느낌이다. 이를 통해 보티첼리와 라파엘로가 이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보티첼리는 '균형과 안정감'을 지향하는 르네상스적 특징을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천사의 방문, 선택을 고뇌하는 마리아)'를 극대화하는데 활용하는 반면, 라파엘로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보다도, 안정감과 균형을 추구하는 르네상스적 특징을 우선적으로 부각하고, 그 전체의 균형감 속에서 배경과 인물의 시선을 통해, 작품의 초점(성경을 읽는 마리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듯했다.

다음으로 대비되는 것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이다. 라파엘로의 <수태고지>는 어두운 톤의 채감으로 전반적으로 고독하고, 적막한 느낌이다. 이에 반해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다. 두 사람에게 <수태고지>라는 주제가 다른 의미였을까. 라파엘로에게는 <수태고지>가 밝거나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나는 라파엘로의 <수태고지>를 계속 바라보다가, 라파엘로가 <수태고지>를 통해 결코 어두움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먼저 작품 중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경이 '떠오르는 태양을 앞둔 새벽'으로 묘사된 것처럼 느껴졌다. 왕 중심의 권력회포로 고통과 폭력이 만연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예수'로 대표되는 새 날, 새 시대를 여는 아침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천사의 날개는 검정색이고, 작품 상반부의 기둥은 왜 검은색이며, 마리아를 휘감고

있는 천과, 구름을 탄 어느 천사의 웃음 검정색이란 말인가. 나는 문득 라파엘로가 ‘마리아’의 내적마음상태를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예수를 잉태할지 말지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는 선택을 앞둔 마리아의 마음상태 말이다. (작품 속 천사, 구름 위의 천사, 새가 마리아를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마리아의 마음으로 이 작품을, 이 상황을 이해해보라는 것은 아니었을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느 처녀가, 예수를 잉태한다는 말도 안 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보낸 천사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당신은 누구고, 당신이 나를 속이거나 해칠지도 모르거늘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예수라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천사, 하느님에 대한 순간적인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검정색’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었을까. 의심하는 마리아의 눈에 천사는 ‘검은날개’를 가진 천사요, 하느님이라는 신을 의심하는 마리아의 눈에는 ‘구름 위의 천사(혹은 신)’은 믿어야 할지 말지 모를 그런 ‘검은 천사’가 아니었을까. 천사가 들고 온 꽃도 그리 예쁘게 보이지만은 않고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홀로 예수를 잉태할지 말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마리아의 고독한 마음이, 작품의 속 어두운 기둥의 공간과 배경 속 황폐한 공간 등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마리아와 밝아오는 아침을 알리는 밝은 하늘은 마리아가 혼란스러운 마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작은 암시를 준다.

그에 반해,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는 밝다. 천사가 들고 온 꽃은 백합처럼 크고 예쁜 꽃이고, 날개는 하얗고도 오묘한 빛깔의 신비로운 색과 모양을 가졌다. 천사가 입은 옷도 마리아가 입고 있는 주름진 옷들과도 비슷하며, 옷을 여미고 있는 줄과 끈 역시 생생한 현실감을 더한다. 작품 뒤의 배경 속에는 이미 날이 거의 밝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과 세상이 보인다. 보티첼리는 <수태고지> 속 마리아와 천사의 만남을 극대화해 묘사함과 더불어, 작품의 밝은 색깔로 천사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 기쁘고 밝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손으로는 천사에게 손사래를 치는듯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기뻐하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 혹은 이미 받아들인 마리아의 마음을 밝고 화사한 색감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보티첼리가 생각한 <수태고지> 속 마리아의 마음은 기쁜 것이 아니었을까. 신비롭고 오묘한 빛깔의 날개를 가진 천사가 다가와 예수를 잉태할지도 모른다고 전하는 그 말이, 마리아에게 기쁘고 감사하게 들렸다고 생각하고 그리 표현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파엘로의 <수태고지>는 마리아의 시선으로 마음으로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 믿는다. 나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며, 부담감이 심할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홀몸으로 잉태하겠다는 그 말을 어떻게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은 라파엘로의 분위기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결코 인정하거나 보고 싶지 않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직시하는 사람은 라파엘로가 표현한 저 마음을 닮아있지 않을까.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국가 권력과 자본권력이 그에 반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을 압살하고 있고, 지금도 땅에서 고공에서 저마다의 고통을 부르짖고 있는 절규가 세상에 만연하다. 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며, 각자도생에 매몰되어 내 삶만을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

나는 그동안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봐왔고, 유아기적 환상에 젖어 내가 살아

가고 있는 세상이 충분히 아름다운 세상이라 믿으며 살아왔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내가 세상을 누비며 바라본 세상은 수많은 피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이었다. 그 속에서 진실로 말하면 나는 방관자였고, 협조자였다. 내 삶에만 매몰되어 사는 동안, 내 주위의 벗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쳐있었고, 울고 있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는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싶고 믿고 싶은 희망하는 세상이고, 라파엘로의 <수태고지>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속 우리네 세상이었다. 나는 내 안의 나만의 환상을 청산하고, 라파엘로처럼 현실에 기반 하여 냉엄하게 진실을 바라본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되, 보티첼리처럼 조화롭고 아름다운 희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작품을 비교해보며 흥미로웠다. 처음에는 보티첼리의 <수태고지>가 더 매력적이었다. 밝고 화사한 색감. 아무래도 어둔 색감보다는 밝고 화사한 색감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감상문을 마무리하는 지금의 나는 라파엘로의 <수태고지>가 더 정이 간다. 마치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는 내가 바라보고 믿고 싶은 '나만의 환상'을 그려내고 있다면, 라파엘로의 <수태고지>는 내가 믿고 싶거나 바라보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 속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라파엘로의 <수태고지>에 발을 딛고,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를 희망하며, 나만의 <수태고지>를 내 삶 속에서 꽃 피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라파엘로는(1503)와 보티첼리(1489)보다 <수태고지>를 더 늦게 그렸다. 그동안 다른 아름다운 수태고지를 보고도, 라파엘로는 자신만의 <수태고지>를 어둡게 그렸다. 라파엘로가 그동안 다른 형태의 수태고지를 그렸는지는 모르겠다. 1503년에 비로소 수태고지가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것인지, 1503년에 처음 수태고지를 그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문득 글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은, 라파엘로가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수태고지>를 그렸고, 이 작품에 대해 자신의 나름대로 만족하지 않았을까 한다.**